

보도일시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10. 13.(금)

용산어린이정원, 어린이 전용 테니스장 개장

- 만 15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... 사전예약제로 운영
- 축구장·야구장에 이어 테니스장까지... 어린이 전용 스포츠 공간 확충 ‘속도’
 - 14일, 15일 이틀간 초등 선수 테니스 대회 개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월 14일(토)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 필드 내 어린이 전용 테니스장을 공식 개장할 예정이다.

- 테니스코트는 총 6면으로 실외 인조잔디 코트 2면, 실외 하드코트 4면 및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만 15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.
- 인터넷 선착순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*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(yongsanparkstory.kr) → 프로그램 및 시설예약 → 시설예약

□ 한편, 국토부는 어린이 전용 테니스장 개장을 기념하여 10월 14일(토), 15일(일) 이틀간 ‘2023 용산어린이정원 꿈나무 테니스 한마당’을 개최할 예정이다.

- 새싹부(만 7세~8세), 10세부(만 9세~10세), 12세부(만 11세~12세)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,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선수 총 80명이 참석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“가족들과 함께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어린이 테니스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기를 바란다” 면서,

- “지난 5월 축구장, 야구장에 이어 이번에 테니스장도 개장한 만큼, 용산 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가 글로벌 스포츠선수로 자라날 어린이 선수들이 스포츠를 배우고 기량을 키워나가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	책임자	과 장	정승수 (02-2131-20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윤하 (02-2131-2036)



□ 추진배경

-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피드 내 테니스장 개장 기념 초등 테니스 선수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테니스장 체험기회 제공 및 홍보

□ 테니스대회 개요

- (행사명) 2023 용산어린이정원 꿈나무 테니스 한마당
- (목적) 스포츠피드 테니스장 개장 기념 유소년 테니스선수 대상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테니스장 체험 기회 제공 및 홍보
- (時/所) 10.14일(토)~15일(일)(2일간) / 스포츠피드 내 테니스장
- (참석) 만 12세 이하 유소년 선수 80명 내외
 - 새싹부(만7세~8세) 남녀 각 8명, 10세부(만9세~10세) 남녀 각 16명, 12세부(만11세~12세) 남녀 각 16명
- (신청방식) 초등테니스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(~10.10)
- (주최/주관) 국토부 / LH, 한국초등테니스연맹

□ 시상 규모

- 테니스대회 경기 결과에 따라 각 부(6개부)별 3등까지 상장 수여(10.15) 하여 총 24명 대상 시상

<용산어린이정원 테니스대회 시상계획(안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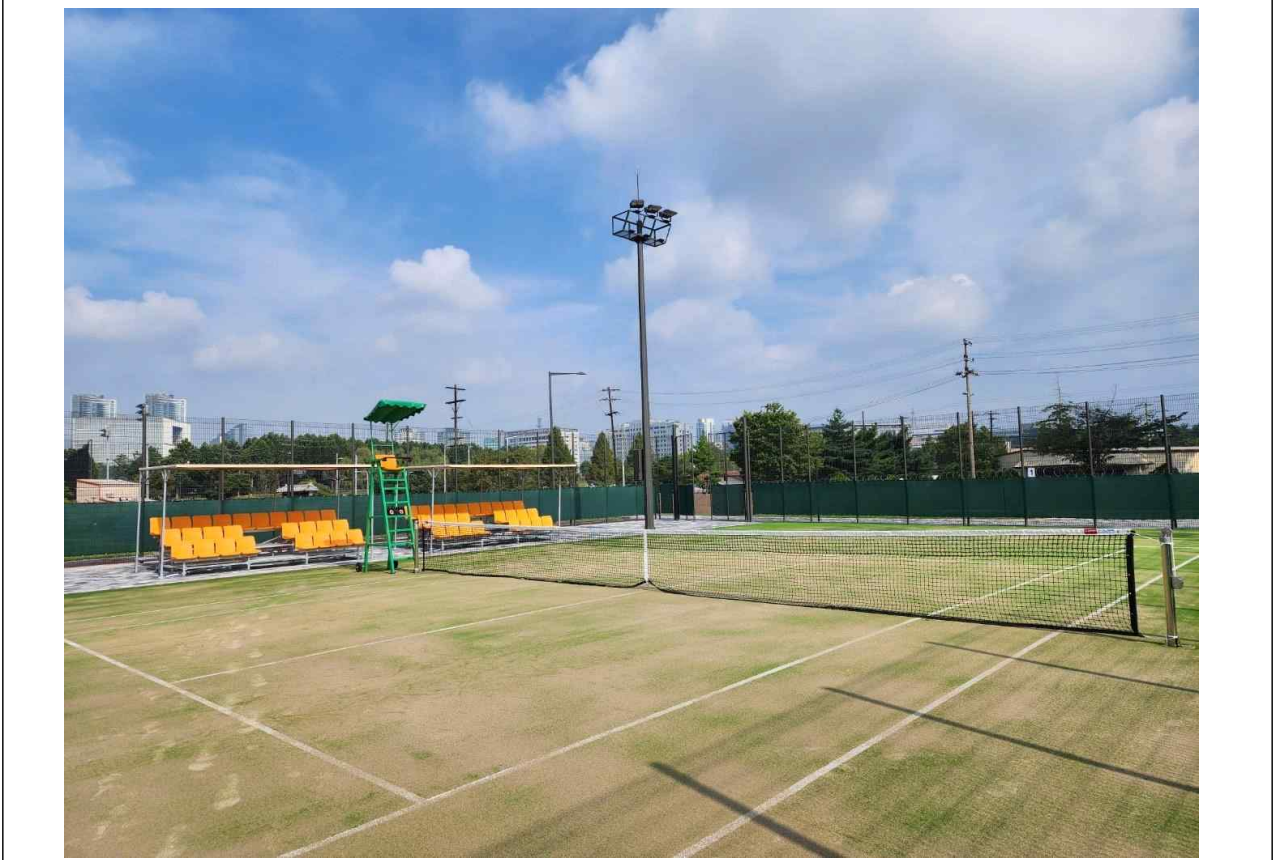
등수	상훈	시상규모
1위	국토교통부 장관상	각 부별 1위 6명
2위	초등테니스연맹 회장상	각 부별 2위 6명
3위	초등테니스연맹 회장상	각 부별 공동 3위 12명

※ 세부 시상 내역은 대회결과 및 시상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참고

테니스코트 현장사진 및 조감도 ※ 대용량 파일 별도 첨부

현장사진



조감도

